

선교매트릭스(이영)

TMTC 15기 인천북부별무리 정진화

‘선교 매트릭스’라는 책이 내게 주는 첫 인상은 왜 매트릭스일까? 였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다. 물론 영화 ‘매트릭스’가 가장 먼저 생각났기도 했다. 매트릭스 2의 인물 중 키메이커는 인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어떤 형태, 어떤 장소의 문 앞에 서더라도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확한 열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문을 열어 네오와 그의 일행을 안전한 장소로 탈출시키는 키메이커의 등장은 영화 ‘매트릭스’ 전체 이야기를 푸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선 열쇠가 필요하다. 올바른 열쇠로 문을 열기 전까지 우리는 문 너머 세상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알 수 없다. 문과 열쇠는 본래 한 짝이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열쇠 전부를 들이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오로지 문에 맞는 열쇠 단 하나가 문을 열 수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주인공 네오는 마지막 문을 열기 전까지 자신이 무슨 세상에 살았고 어떤 최후를 맞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지막 문을 열기 전의 매트릭스와 그 후의 매트릭스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지 못했던 세상과 삶은 다르다. 그 열쇠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역이 아닐까 싶다.

또한 선교 사역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연결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이 책을 읽으며 알 수 있었다. 또한 선교의 특성과 사명, 선교사의 사역과 책무, 선교철학과 전략을 하나하나 살피며 각각의 용어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에 대해 무지하며 도전이 되었던 tmtc 선교훈련에서 이 책은 선교와 관련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선교에 대한 지적 성장을 도왔다.

그 중 이 책의 여러 주제들 중 여성 선교사의 선교사역이 눈에 띄어 정리하고 싶었다. 첫 번째로는 여성 선교사들은 종종 남성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이라는 영역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며 이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며 건강과 복지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 두 번째, 여성 선교사들은 다양한 사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상담, 커뮤니티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여성 선교사들은 종종 높은 문화적 민감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한다. 이들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돕는다. 넷째, 여성 선교사들은 종종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다섯째, 여성 선교사들은 현지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도 기여한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성경에서 선교사라는 현대적인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한 여성이 누굴까? 다시 돌아보았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프리스킬라(프리스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중요한 여성 인물 중 하나였다. 프

선교매트릭스(이영)

TMTC 15기 인천북부별무리 정진화

리스킬라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는 로마에서 유대인으로서 추방당한 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사도행전 18:2).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공유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동했으며(사도행전 18:18-19),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특히 아폴로라는 유능한 설교자를 더 정확한 복음으로 교육한 것으로 유명하다(사도행전 18:24-26).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6:3-5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고 언급했다.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초대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 때 프리스킬라는 헌신적이었으며 가정교회로 많은 이들에게 돌봄과 섬김의 섬세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남녀의 서로다른 다양성의 은사가 새겨져 있듯 말이다.

교사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단지 그 사람 개인의 소명이 아님이 분명하다. 공동체의 사명이며 그것을 일선에서 감당하는 이가 그 선교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파송된 선교사를 기도와 후원으로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어느 곳이든 그 곳이 선교지이며 나는 선교사로서 여성 선교사로서 교육선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선교임을 깨닫는다.